



# 신들에게 세배하며 이 땅의 무사안녕 기원

무형문화재 송당리마을제  
오늘 신과세제 의식 재현  
새해 본향당신 찾아 문안  
음력 10월까지 4대 당제  
전통문화 복원 등 취지



제주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송당리마을제. 음력 1월 13일 신과세제를 시작으로 음력 10월까지 4대 당제 재현 행사가 이어진다.

마을에 깃든 신들에게 세배하며 새해를 여는 민속 행사가 있다. 이달 6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본향당에서 펼쳐지는 신과세제다.

제주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하는 신과세제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된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 사업으로 마련됐다. 문예재단은 2017년부터 매년 송당본향당 일원에서 전통문화 복원을 취지로 송당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4대 당제를 재현해왔다. 4대 당제는 음력 1월 13일 신과세제를 비롯 영등제(음력 2월 13일), 마불림제(음력 7월 13일), 시만곡대제(음

력 10월 13일)를 일컫는다.

새해 첫 당제인 신과세제는 마을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수호신인 본향당신에게 문안을 드리고 한 해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다. 이날은 공동체의 염원을 담아 마을민

들이 본향당에 모여 신에게 제물을 올리고 그 해의 운수를 점친다. 특히 마을에서는 신과세제를 찾는 이들을 위해 닭메밀갈국수를 직접 만들어 대접해왔다.

이번 신과세제는 제주철머리당영

등굿보존회 김운수 회장과 회원들이 집전한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과세제에 이은 당제는 음력 2월 영등신을 위한 영등제다. 제주시 건입동 철머리당영등굿 등 해안 마을에서 주로 행해지는 영등굿과 달리 중산간 지역에서 열리는 영등제로 신과세제에 참석하지 못한 신앙민을 대상으로 간소하게 진행한다. 마불림제는 여름 농작물들이 수해 없이 잘 자라고 소와 말이 불어나길 바라는 의미가 있다. 추수감사제 성격인 시만곡대제에서는 농사가 잘 되도록 보살펴준 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문예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나 연기되고 있지만 날짜가 정해진 당제여서 변경이 어려워 규모를 축소해 신과세제를 치른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된다. 문예재단은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詩(시)로 읽는 4·3 (45)

## 너븐송이 세 남매

오광석

세 남매와 희미해진 흔적을 따라 학교로 걷습니다 큰 아이 둘은 스마트폰 게임 얘기에 빠져있습니다 막둥이는 안아달라고 칭얼거립니다 검은 구름이 북촌 하늘을 덮을 때 세 남매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비를 맞으며 너븐송이로 걸었어 어린 세 남매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쳐 살 자리로 가지 못했지 천둥소리가 총포처럼 들렸어 우는 동생을 안고 번쩍이는 불빛에 누나는 눈을 감았지 무섭고 추운 겨울 홀로 울던 막둥이는 소나무 밑에 부들부들 떨다 누워 잠들었어

하늘에서도 같이 살라고 너븐송이 아래에 세 남매는 나란히 누워있습니다 여미가 맨손으로 쌓은 돌무더기 위에는 말라버린 눈물자국만 패여 있습니다 가장 작은 무덤 앞에 장난감 하나 올립니다 큰 아이 둘의 표정엔 엄숙함이 담겨있습니다 가슴에 안겨 잠든 막둥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1949년 1월 17일 아침. 구좌 세화리 주돈 2연대 3대대(대대장 정준철 소령) 중대 병력 일부가 대대본부에 있는 함덕으로 가던 중 북촌마을을 고갯길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군인 2명이 숨졌다. 마을에서 군인이 사망하자 당황한 원로들은 시신을 들것에 실어 함덕 주돈부대로 찾아갔다. 군인들은 스스로 찾아간 10명의 연로한 주민 가운데 경찰 1명을 제외해 모두 총살해 버렸다. 이날 오전 11시쯤. 2개 소대 병력이 북촌마을을 덮쳤다. 군인들은 주민들이 숨어있을 곳을 살살이 뒤지면서 590여 채의 가옥에 불을 질렀다. 모든 주민은 북촌초등학교로 집결할 것을 명령했다. 학교운동장을 예위한 군인들은 기관총을 세 방향에서 겨냥해 주민들의 도주를 차단했다. 한 장교가 제안을 했다. "입대한 후에도 적을 사살하지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 도립예술단 실무위 구성... 오페라 기획 인력 폐지

예술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무용단 사무국에 의상 담당 등  
실기 전형위원 위촉 수 늘려  
실무위 연 2회 이상 개최토록

조례안에 따르면 예술단 정원은 5개 예술단(도립 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합창단, 서귀포합창단)을 합쳐 현행 305명에서 302명으로 조정한다. 상임단원 수는 변동이 없지만 기능별 인원을 조정할 결과 예술단 정원이 감소한 것이라고 했다. 사무국 정원은 전문성 강화를 취지로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그동안 채용 사례가 없었던 무용단 오페라 기획 담당(2명)을 없애는 대신 의상·무대 담당(2명)을 신설했고 서귀포예술단 사무국엔 운영관리 담

당(2명)을 만들어 정원을 5명으로 키웠다. 다만 무용단원의 경우 사무국과 별개로 오페라 관련 정원(32명)은 존치시켰다.

단원 실기 평정을 하는 도립예술단 전형위원회는 현행 3~5명에서 4~6명 위촉으로 바꿨다. 예술단에서 전형위원을 3명만 위촉할 경우 최고, 최저 점수를 뺐을 때 1명의 전형위원 점수만 반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예술단원과 사무국 단원 위촉연령은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해 55세 이

하에서 60세 이하로 개정한다. 예술단원과 사무국 단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휴직처분이 가능하다는 사항도 신설했다.

도립예술단 실무위원회 설치도 개정 조례안에 새롭게 담았다. 도립예술단 운영·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검토, 도립예술단의 기획·합동공연 레퍼토리 개발, 도민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 2회 이상 개최하게 될 실무위원회는 제주도 문화예술담당국장이 위원장,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예술단 안무자·지휘자·사무장·노조 대표·단원 대표, 관련 업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선희기자



장원호의 '산의 향기#4'.

# 먹빛에 내려앉은 사계절 산의 향기

장원호 세번째 개인전  
이달 8-13일 문예회관

사계절 산의 향기가 먹빛에 내려앉는다. 제주 문인화가 장원호씨가 종이 위에 수묵담채로 펼쳐놓는 그림전이다.

이 전시는 '명상록으로 담아낸 수묵 산수'란 제목을 달았다. 먹물의 농담을 바탕으로 얹은 채색을 더한 '산의 향기' 연작으로 우리의 산하를 그렸다. 거기에 한라산, 정방폭포, 일출봉 등이 자리한 풍경도 있다. '천하명승 금강산' 8폭병도 나온다.

최혁준 서담미술관장은 이번 작품전에 부친 글에서 "판넬과 진경의 특성을 조합해 만들어낸 그만의 조형언어가 있다"며 "문인화의 축적된 필력으로 오묘한 먹빛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있다"고 했다.

장원호 작가는 제주도미술대전 문인화 초대작가로 이번이 세번째 개인전이다. 전시는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6시에 열린다. 전선희기자

# 예술공간 오이 주말엔 '스탠드업...'

예술공간 오이가 2월 주말엔 연극 '스탠드업 그리고 자의적의자'를 펼치고 있다.

전혁준씨가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스탠드업'과 '자의적의자' 두 개를 묶어 하나로 만들었다. 코미디 장르 연극으로 다른 존재가 증명해주시 않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미연·남석민·문혜

림·이상철·서동진씨가 출연한다.

일정은 8-9일, 15-16일 오후 3시와 7시(제주시 연북로 66, 예코파인 지하1층). 관람료 1만2000원(티켓소지 후 재관람 8000원). 예술공간 오이는 공연장 소득은 물론 손소독제를 비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문의 010-9687-0919. 전선희기자

**4만원 할인!**  
정품 필터 증정

**방수 IPX5**

**맨유 직관 500만원 상당**

BD-N443

겨울 필수품 비데 할인 혜택받고,  
**맨유 직관의 행운까지!**

12월 24일 - 12월 31일

방수 비데  
특가 할인판매  
**노비타 컴포트 비데**

정가 299,000원  
할인 판매가 **259,000원** [4만원 할인]  
[무료 설치 서비스]

인기 모델 파격 혜택!

1년치 정품 필터 [2개]

BD-N443의 주요 기능!

- feature 01 혁신적인 설계로 방수와 탈취 기능이 동시에 분체 IPX5 / 리모컨 IPX7
- feature 02 인체공학적 설계 곡면 디자인 시트
- feature 03 한번의 조작으로 세정과 마시지를 동시에

노비타 구매 이벤트  
**박지성도 만나고,  
맨유 직관의 행운까지!**

응모방법 : BD-N443 구매하고 홈페이지 응모  
응모기간 : 12월 24일 - 12월 31일  
당첨자 발표 : 1월 6일 (개별 통보)

맨유 직관 행운	에어팟 2세대
1명	10명
맨체스터 백맥	박지성 팬미팅
15명	200명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  
욕실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하라  
**노비타 라인핏**

☆3년 무상 A/S☆

BD-AFE50N 229,000원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마린나사거리  
빈스 | 오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마리나호텔

BD-AE91 269,000원